

불자 세상보기



정림 스님
전등사 기획국장

10월 20일 한 가지 낭보가 날아들었다. 바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본부가 한국, 그것도 인천에 유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몸 담고 있는 사찰의 지역에 유치됐다는 사실에 조금 더 관심이 가기도 했다. 일단은 대다수의 여론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도시라는 면모가 무색할 만큼 경기가 침체됐던 인천은 이번 유치를 기회로 지역 발전의 기대감과 활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치한 대형 국제금융기구 GCF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앞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향후 GCF는 기후변화 장기재원 중상

GCF 유치, 환경 인식 확대 계기 삼자

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기재원은 공공·민간재원 등을 통해 늘려 나가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쏟아지니 기대감은 현실적인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는 2013 아시아안개임, 얼마 전에 끝난 여수 국제박람회 등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인 효과에 초점이 모아지며 더불어 격상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데 포커스가 비추지고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돼 영향을 미친다는 불교의 연기론적 관점에서 보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어찌 기후뿐만이 물, 토양, 숲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전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면서

배출 순위 세계 7위국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등 겉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을 야기했다. 녹색으로 포장된 각종 성장정책들의 문제는 어찌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GCF 유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의 계기가 돼야 한

GCF 자부심 들지만
환경인식 수준은 '의문'
연기법서 해답 찾아야

'현재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의식 수준은 과연 국제적 수준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세계은행에 차곡차곡 기금이 쌓여간다면 우리의 환경 인식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 그만큼 환경 인식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이나 활동 또한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GCF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유치국으

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민관과 정파를 떠나 다시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국격과 경제 효과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담과 고통도 따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일은 그러한 일들이 즉흥적이거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추진되는 경우이다. 충분한 준비나 경험없이 우후죽순적이거나 경쟁적으로 각종 사업이나 이벤트에 치중하는 것은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다. 부처님의 고준한 가르침인 연기론을 곱씹고 생활 속에서 발견해보는 개인의 기쁨이나 마음의 위로를 얻는데 더 치중하는 우리의 신행 풍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기복보다는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 불자들의 신행 또한 그러한 수준에 걸맞게 한 단계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탄탄한 교리 인식과 정진의 힘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의 행복을 위한 기반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사부대중 갈림



임연태
백산생명환경포럼 사무국장

사람 나이 스무 살엔 자갈도 소화 시키고, 겁날 것도 못할 일도 없다는 찬사를 듣는다. 열기만 왕성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했다. 어지간하면 '달인'의 경지가 된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그 20년의 무게는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데 10월 24일로 나이 스무 살이 된 '사찰문화연구원'은 달인은 커녕 집도 절도 없는 신세다.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현재 사찰문화연구원은 사무실도 없고 그동안 펴낸 책들을 관리할 인력도 없다. 찬바람 스치는 길거리에서 너무나 쓸쓸하게 스무 살 생일을 맞았다. '사찰문화연구원'은 1992년 사찰에 갖는 문화를 제대로 정리하고 새롭게 해석하여 출판물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

집도 절도 없는 스무 살 '사찰문화연구원'

자는 취지로 창립됐다. 당시엔 사찰담사가 일대 유행을 하던 시기가 불교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뜻 깊은 사찰문화운동이었다. 창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1960년대 서울 봉은사 '대학생수련회'에서 함께 공부했던 구도의 동지들이었다. 몇 명의 연구위원들을 위촉하고 '원위'가 될까 봐 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둔 채 사찰에 전승되어 오는 유형 무형의 가치들을 탐구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첫 결과물은 <용주사지>였고 한문 투가 아닌 한글로 쉽게 풀어 쓴 것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곧바로 착수한 <전통사찰총서>는 향후 12년 동안 22권으로 완간 됐다. 그 시리즈는 당시 850여 전통사찰을 총망라해 소개 했다. 사찰의 역사와 문화제 그리고 도량 배치의 의미와 관련 인물들까지 살살이 소개한 이 총서는 개별 사찰의 '사지(寺誌)'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총서 시리즈는 현재 절판상태나 다름없다. 2005년 도서출판 솔바람이 판매권을 인수했지만, 독자들의 외면 속에 계속적인 간헐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많은

전통사찰들이 많은 불사를 진행했고, 150여 곳이나 신규로 지정돼 지금은 전통사찰이 1000여 곳이나 된다. 지금쯤 증보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전통사찰총서'는 오류투성이의 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전통사찰을 제대로 소개하는 책은 없는 셈이 된다. '사찰문화연구원'은 근래 대한불교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보다 심층적으로 '전통사찰총서' 불사 독자외면 속 절판 상태 '달인' 대접 커녕 메뚜기 신세 사찰을 소개하는 시리즈들을 내놓았고, 사찰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획서들도 출판해 왔다. 그러나 출판시장의 불황과 마케팅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사찰문화연구원'은 지금 빈주먹만 쥐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스무 살에 집도 절도 없는 신세라니...

'사찰문화연구원'이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다. 연구원들은 언제나 의욕적이었지만 그 의욕을 뒷받침해 줄 '실탄'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출판 시장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인터넷 문화가 급속히 자리 잡는 가운데 재정 관리 마케팅 같은 운영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없었다. 더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스무 살의 '사찰문화연구원'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찰은 중요한 공간이다. 사찰에서 수행과 신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도, 템플스테이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 사찰을 벗어나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20년 동안 사찰문화를 연구해온 단체가 '달인'으로 대접받기는 커녕 책상 하나 놓을 곳이 없다는 것은 사찰을 떠났으므로 수행과 신행을 하고 있는 한국불교계 전체의 치욕이 아닐까? '사찰문화연구원'도 불교계도 이 '스무 살의 불행'을 극복할 묘수를 하루 속히 찾아야 한다.

社說

진각문화전승관, 밀교 중심지 되길

대한불교진각종(이하 진각종)은 1947년 6월 14일 회당 손규상(孫圭祥, 1902~1963) 대종사가 대구서 신불교 운동을 주창하며 창종했다. 진각종은 부처의 마음이 비밀리에 전해진 수행을 본질로 삼는 밀교를 표방했다. 창종자인 회당 손규상 대종사는 대중들에게 "깨달아 보라, 참회해 보라, 실천해 보라"를 외쳤다. 불교는 마음을 닦아 자성을 밝히는 종교이며 부처는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종교적 구원이 절대자나 그 밖의 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닫고, 참회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뤄진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손규상 대종사는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가장 우선 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창종과 동시에 교육에 치중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강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

이다. 올해로 창종 65년을 맞은 진각종이 이제 더 한층 발전을 위한 비상의 기회를 맞고 있다. 2007년부터 총인원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진각문화전승관 불사가 5년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총인원 성역화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11월부터 국제관과 교육관이 2년에 걸친 불사에 다시 들어간다. 진각문화전승관은 진각종의 중심사상인 삼밀수행의 가치를 세우는 교리적 공간배치로 건축했다는 점에서도 종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창종주의 향훈을 이어받아 교육 복지 문화포교에 치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거대한 외형적 대형 불사라면 그럴 것이 아니라 이번엔 완공된 전승관을 훌륭한 도량으로 가꾸어 한국 밀교의 중심지로 키워 나가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손규상 대종사가 진각종을 창종한 큰 이유일 것이다.

진화하는 불미전에 거는 기대

한국 사회에서 전통을 고수하고 이를 계승하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대중들의 관심은 적고, 지원해주는 단체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불교 미술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은 척박했던 불교 미술계의 등용문이었다. 불미전은 1970년 시작된 이후 일시 중단되거나 격년제로 개최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면서 문호는 확대해 왔다. 하지만, 기성 작가들의 참여가 부진으로 인한 질 저하는 항상 문제가 돼 왔다. 실제 매년 실시된 이후에도 대상작을 내지 못한 해도 여럿 있었다. 또한 예술성과 대중성의 부재는 역사성에 걸맞은 명성과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걸림돌이었다. 문화부는 지난 2월 운영 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기획전과 공모전을 격년제로 병행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불미전은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수상자 중 우수

상 이상 수상자 및 장려상 이하 3회 이상을 수상한 작가 가운데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작가를 선발 작품을 전시한다. 불교미술 작가의 발굴 및 육성은 물론 불교 미술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조계종의 계획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사실 그간 불미전의 위상 제고를 위해 기성 작가의 참여 유도나 수상자 배려 등 불미전 발전을 위한 방안은 쏟아져 나왔다. 알고는 있었으나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40여 년의 시간동안 불미전은 적지 않은 부침이 있었고, 올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분명 이번 불미전의 변화는 분명 기성 작가들의 창작욕을 높이기 충분한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종단과 일선 사찰들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 문화가 명맥을 이어가고 발전하는 원동력은 사람의 힘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전법사
책자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신제품
MSM Glucoaid & Omega3 Cream
MSM Glucoaid & Omega3 Cream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로벌케어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120ml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줄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뿔아 버리고 싶은 마음일때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뿔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능 효과 ◎
▶ 잇몸질환 예방 ▶ 구취 제거
▶ 치주질환 예방 ▶ 시린 이 개선
▶ 충치예방 ▶ 미백효과
▶ 치태제거
200g × 2개 가격 25,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